

연예뉴스 HOT 3

김태희, 강남역 빌딩 매각 71억 시세차익



김태희

배우 김태희가 서울 강남역 인근에 소유한 빌딩을 매각해 7년 만에 71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태희는 3월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을 203억원에 매각했다. 그는 이 빌딩을 2014년 6월 132억원에 매입해 6년 9개월 만에 71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김태희는 해당 빌딩을 개인 명의로 매입해 2018년 12월 소유권을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임대업 법인으로 이전해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희는 가수 겸 배우인 비와 2017년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아들의...’ 안성기·윤유선, 13일 관객과 대화



안성기

윤유선

배우 안성기와 윤유선이 12일 개봉하는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감독 이정국)를 통해 관객과의 대화(GV)에 나선다. 이들은 이정국 감독과 개봉 다음날인 1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기인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와 강남구 CGV압구정에서 각각 열리는 GV에 참석한다. 영화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피해자인 안성기가 아들과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린다. 안성기와 윤유선은 이날 관객들에게 직접 감사인사와 촬영 비화 등을 전할 예정이다.

에릭 오 ‘오페라’ 안시애니메이션영화제 경쟁부문에



에릭 오

아카데미 후보로 지명됐던 에릭 오(한국명 오수형)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오페라’(Opera)가 세계 4대 애니메이션 영화제로 꼽히는 안시애니메이션영화제 경쟁부문에 올랐다. 10일 에릭 오의 소속사 바나는 “‘오페라’가 해당 영화제의 경쟁부문인 단편 영화부문 상영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오페라’는 지난달 26일(한국 시간) 열린 제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은 하지 못했다. 낮과 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인류 역사의 계층·문화·종교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편집 | 안도영·유진희 기자

일본 시청자 131명이 설문서 밝힌 ‘사랑의 불시착’ 인기 요인

“스토리·주연배우 매력적” 90% 이상 만족감

여성·40대 많이 시청 20대도 11% 인터넷 SNS 화제성도 인기 한 몫 “한국·북한 이미지 좋아져” 응답도



연기자 손예진·현빈(왼쪽부터)이 주연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지난해 일본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현지에서 식지 않은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인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그동안 다양한 지표가 드라마의 현지 위상을 설명해왔지만, 이번에는 실제 시청자의 직접적인 의견이 담긴 결과여서 의미가 커 보인다. 또 향후 한류의 미래에 관한 시사점도 던져준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최근 일본 시청자 131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불시착’의 시청 계기, 매력 포인트,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이미지 변화 여부 등을 설문조사했다. 응답자 가운데 93.2%가 여성으로, 기존 한국드라마 팬층인 40대(24%) 비중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대의 비율이 11.4%로, (드라마가) 넓은 연령층”의 선호를 받았음을 보여준다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밝혔다.

28.5%의 응답자가 “인터넷·SNS상 화제”에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드라마에 대한 원래의 관심

(21.2%) 말고도 ‘친구나 지인의 추천’을 받아 드라마를 봤다는 응답도 18.9%의 비중이었다. 드라마가 지닌 스토리의 힘(43.2%)이 광범위한 입소문의 힘으로 많은 시청자를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스토리가 ‘매우 매력적’이거나 ‘매력적’이었다고 답한 이들이 91.9%에 달해 시청자의 만족도를 드러낸다. 주연 손예진·현빈의 매력에도 93.2%의 응답자가 높은 점수를 줬다.

‘사랑의 불시착’은 한국의 재벌가 여성과 북한군 장교의 로맨스를 그리며 북한주민들의 일상을 담아냈다. 일본 시청자들은 이를 통해 한국(35.6%)과 북한(62.9%)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답해 눈길을 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한도 치즈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도쿄 통신원은 “오랜 한류드라마 팬 사이에서는 ‘사랑의 불시착’이 전형적이라는 부정적 응답도 나왔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인기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또 다른 한국드라마를 보려는 마음을 유인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결과”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윤유선 기자 tadada@donga.com

‘시청률 1%’ 지상파 드라마의 굴욕



종영 앞둔 MBC ‘오! 주인님’ 이민기·나나 투입에도 ‘시들’ KBS2 ‘이미테이션’도 1%대



연기자 이민기·나내위 사진 왼쪽부터)가 주연한 MBC ‘오! 주인님’과 연기자 정지소(아래 사진)가 주연하는 KBS 2TV ‘이미테이션’이 1%(닐슨코리아) 시청률에 머물러 안타깝게 시선을 받고 있다. 사진은 드라마의 한 장면. 사진제공 | MBC·KBS

‘시청률 1%의 굴욕’

최근 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일부 드라마가 1%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그간 안방극장에서 저력을 과시해온 주연급 연기자들과 아이돌 스타들까지 총출동한 상황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 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13일 종영하는 MBC ‘오! 주인님’은 ‘굴욕적’이다. 드라마 작가(이민기)와 톱스타(나나)의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는

3월24일 2.6%(이하 닐슨코리아)의 시청률로 시작해 지난달 8일 5회 이후 1%대 시청률을 맴돌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별다른 화제를 모으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야기가 시청자의 시선을 좀처럼 잡아 끌지 못하면서 ‘뷰티 인사이드’ 등 전작에서 화제를 모은 이민기를 비롯해 아이돌 그룹 출신으로 국내외에서 탄탄한 팬덤을 갖춘 나나와 씨엔블루 강민혁 등 주연들도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7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KBS 2TV ‘이미테이션’도 1%의 시청률에 그쳤다. 드라마는 “치열한 연예계를 현실감 있게 그려냈다”며 이준영·에이티즈 윤호 등 아이돌 멤버들을 주연으로 내세웠지만 큰 반향을 이 끌지는 못하고 있다. 트위터 등 1020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 플랫폼에서 호기심

어린 반응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OTT(동영상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주 시청자 층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관심이 시청률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로맨틱코미디·아이돌 드라마 등 폭넓은 시청자와 교감하기 어려운 장르의 한계라는 시선과 함께 방송사들의 낮은 콘텐츠 파워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10일 “시청자에 익숙한 작법에 의해 그려지는 이야기로 시청률을 눈에 띄게 늘리기는 힘들다”며 “KBS·MBC가 최근 1년 새에 주목 받는 드라마를 내놓지 못하는 등 안방극장 내에서 입지가 좁아져가는 상황도 무관치 않다”고 평가했다.

유지희 기자 yjh0304@donga.com

BAŞAK튀김기는 유증기제로! 식용류 사용 2/3절감!

가스로 2/3절감! 기름 산화가 안되는 최고의 튀김기

플라즈마 기술 (특허 제 10 - 1196864호)

전국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영업사원, 요리사 모집 포함



1877-415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A동 505호 (동천동, U-TOWER)